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9

2001

가정예배 · 전도서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전도서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9월의 그늘

한 낮의 뜨거운 열기가
깊은 어둠조차 밀쳐내던 지난 여름날!
그래도
상한 영혼 찾아서
거친 사막 길,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분의 서늘한 손길
내 영혼 닿았음에
지금 또 다시
영원한 천부 계신 곳 향하여 걷는 듯 합니다.



언제나
주는 계시고,
사랑!
우리에게 그늘 되심으로
나는
올 가을
그대의 그늘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국화,
어쩌면 이름 없는 들꽃으로
그 사랑
길어내려 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자리에 두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의 성도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2001년 9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전도서 서론

1. 전도서 목적

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초점으로 대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적 헛됨이 아닌 성경적 헛됨에 대한 깨달음이고(금욕, 자유방임적 반응이 아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함이다(세상적 헛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사 40:6,7). 이사야의 선언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얼마나 비웃는 말인가! 세상의 헛됨을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할 마음을 가진다. 솔로몬의 영광을 내려보지 못 해서일까!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청빈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6:29).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헛됨을 경험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시대 주님의 음성이다.

2. 전도서의 중심 단어들

전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헛되고 헛되니”라는 단어는 38회 사용되었는데, ‘hevel’, 공허, 무익, 허망, 비누방울을 터뜨리고 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전도서는 헛된 것, 열 가지를 제시하는데, 인간 지혜(2:15,16) / 인간 수고(2:19-21) / 인간 목적(2:26) / 시기(4:4) / 욕심(4:8) / 명성(4:16) / 부(5:10) / 탐심(6:9) / 부질없는 일(7:6) / 인정받음(8:10,14) 등이다. ② “해 아래”라는 단어는 29회 사용되었는데, 하늘 아래, 인간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을 총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③ “유익”이라는 단어는 10회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이트론’ (yitron)이라 하고, 남겨진 것을 의미하며 헛됨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④ “수고”는 히브리어로 ‘아말’ (amal)이라는 단어인데 23회 사용되었으며 성취와 상관없이 힘을 다하는 순간까지 애쓰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수고는 슬픔, 비참함, 좌절, 피곤(신 26:7, 시 90:10)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⑤ “인간” 또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49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담’ (adam)이라고 하며, 해 아래 있는 사람, 또는 ‘홀’ (adamam)과 관계된 허망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⑥ 전도서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31회 사용되고 있는데 상처받은, 유해한, 슬픈, 곤고한, 사악함, 불쌍함을 나타내는데 쓰여진 단어이다. 이 단어는 해 아래 있는 어리석고 허탄한 인생을 표현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⑦ “기쁨”이라는 단어는 17회 사용되었으며,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⑧ 잠언과 함께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 54회정도 사용되었는데, “어리석음”(32회)과 대비하면서 철학에서 신앙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즉 지혜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장막을 짓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였다(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장막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40회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계시의 하나님임을 나타냄으로써 헛된 인생에 대해 참된 인생을 부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3. 전도서 큰 그림 보기

초 점	해 아래 사는 인생			하늘 위의 삶
내용구분	인간 업적의 헛됨	인간 소유의 헛됨	인간 죽음의 헛됨	인간의 헛됨에 대한 해답
주 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대(1:2)			

4. 전도서 내용 분해

- ① 1:1 - 저자
- ② 1:2 - 주제(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는 헛됨)
- ③ 1:3~1:11 - 서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축적하는 것은 유익이 없음)
- ④ 1:12~11:6 - 첫 번째 교훈
(인생의 참된 기쁨은 불분명하고 의미없는 외형적인 삶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로서 누리는 행복이다)
- ⑤ 11:7~12:7 - 두 번째 교훈
(나이가 들고 죽는 것은 곧 다가올 운명이며, 그러므로 젊음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
- ⑥ 12:8 - 주제의 반복
- ⑦ 12:9~12:14 -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순종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십자가를 지는 삶,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삶이요, 또한 주님을 좇는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21).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나는 길에 붙잡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에 대하여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16:13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21절)와 동일 인물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훈련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아리마대 요셉(43절)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빌라도에게 당돌히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존귀한 공회원으로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삶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요구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6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롬 6:10,11). 둘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19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넷째, 복음 전파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동역하십니다(20절). 주님께서 복음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뒷짐을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복음 전파에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의뢰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 허무와 탄식의 슬픈 고백입니다.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안목과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고이기에 괴로울 뿐입니다(13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9절)라는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에 대한 비전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약속된 부름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일까”(3절). 이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된 기쁨에 대하여 묵상하길 원합니다.

전도자는 이 땅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해봅니다(10절).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못을 파고, 노비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며,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고 무익하도다”(11절). 전도자가 행했던 모든 일을 오늘 이 세대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갈등과 상처, 파괴와 아픔 같은 부정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기쁨입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24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26절).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향해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라고 선언합니다(롬 1:20).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11절). 그러기에 신자나 불신자나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롬 1:21-23). 불신자들의 영원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11절).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14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생이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케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기에 누구나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며(18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1:12).

영원한 삶의 영광과 소망을 붙들고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삶의 영광을 알고 누리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에는 억압과 불공정함 중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억눌림 속에서 차라리 죽은 자가 복되고 출생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살이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억압하는 권세 아래서 눈물 흘리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1절)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될 만큼 욕심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혹 우리는 경쟁심으로 공부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물건을 장만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회의 직분조차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6절을 보십시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함이 독주보다 낫습니다.(9-12절) 특별히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13-16절).

고독과 헛된 인생사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와 위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고후 1:3-5, 요 14:16,18).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학대와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타지 생활 속에서 주님을 알도록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거짓 제사와 헛된 말과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2절).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예배를 받으시는 자와 예배하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와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4절). 누가 우매자입니까? 함부로 말 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지 않으면 결국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말보다는 나의 참된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8-9절).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은 우매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에는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인간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필요에 따라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한이 없는 사람의 욕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24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 즉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심령의 낙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뒤바꿔 놓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입니다(1-4절). 세상에는 의인이 단명하기도 하고 악인이 장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장수한다고 해서 악인의 삶을 살거나 우매자의 삶을 살면 안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지혜를 깊이 연구하기도 했지만(23-25절) 결국 부도덕한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27-28절에서 솔로몬이 마침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지혜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온전히 말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탐욕을 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의 삶 가운데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인이 화를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칭찬을 받으며 안일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의 비밀에 대한 답변을 사람에게 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본문의 왕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보아도 문제는 없지만 문맥상 하늘의 왕, 곧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습니다(3절).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아무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4절). 모든 일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행하십니다(6절). 장래 일을 다 아시고 가르치십니다(7절). 생명을 주장하십니다(8절). 사리의 해석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동안은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는 참으로 무지하오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장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1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평가받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삶의 결국은 동일한 것인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2-3절).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수치이고 고통이어서 사는 날을 비판하며 살아 가지만 한편으로 보면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습니다(4-6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시간을 비판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7-9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10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직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삶이야말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가장 선명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누리도록 주신 선물 가운데 배우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한 기쁨을 흡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게을러서 배우자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작은 우매가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통치자의 그릇된 판단이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삼가 발걸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래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통치자가 미칠 해악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입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한 나라는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 화가 미치기도 하고, 복이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라도 통치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언제 누가 들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불행을 가져왔고, 다윗의 범죄는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통치자이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온 나라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어리석음과 방탕이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찮은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찮은 것이지만 믿음에 어긋난 것이라면 버리게 하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수 없는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여전히 실수 하는 인간의 모습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나타냅니다.

인간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기에 해상업을 하더라도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지말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1-2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보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3-4절).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태아의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우리의 향방을 맡겨 놓고 단지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즐거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도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짧은 날도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는 날도 있습니다(7-8절). 짧은 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행자지 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주어진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고 심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무릇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노년의 때가 다가오기 전 청년의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입니다(1절). 솔로몬은 노년기의 무기력함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묘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노년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헛됨을 깨닫는 자는 이제 그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성실하게 엮어가야 하지만, 창조자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틀 밖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찌르는 채찍이요, 견고하게 잘 박힌 못”과 같은 솔로몬의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창조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손에 잡혀 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본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케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출생에 관한 가브리엘의 예고와 두 사람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는 병어리가 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임했던 천사는 6개월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다윗의 위를 이어 받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를 예수라 부르라고 알려줍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복을 받은 마리아를 알아보았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드디어 천사의 예고를 따라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그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의 예고는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나 예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불행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마리아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의 일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처럼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였습니다. 즉 구주 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13~14절). 천사들의 찬양 내용은 구주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14절). 죄인들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요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평화로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먼저 그 분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구주가 나심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되는 일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찬양은 구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사 구주를 전파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썩혀 불에 던지운다고 경고했습니다.

회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11절).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확대하며 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며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토색하였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후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세리에게 회개는 전한 세만 거두는 것입니다(12~13절). 전한 세 외의 불로 소득을 취하는 것은 착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정한 세만을 거두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회개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14절). 군인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폭력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힘이 있다고 강포를 행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직무에 충실하며 겸손히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고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수정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기도하시고 시험도 물리치시고 역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1절).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낱짜를 정해 두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에 이겼습니다(2-13절). 우리는 말씀을 머리에 충만하게 하고, 머리에 충만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가슴까지 내려가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금식하셨고 시험에 이기셨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27~29절). 로마 정부의 하청인인 마태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30~31절). 예수님은 병든 사람 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 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회개케 하셨습니다(32절).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 러 회개시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천국 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주만 바라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 사(아프리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불신자들의 복의 개념과 우리 성도들의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향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 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세상 물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눈물보다도 회개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2-23절에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대신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대로 살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나 난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성도가 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때는 이 땅에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 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케 하소서 .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어떤 사람을 두고도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를 보면 성도들은 친근감을 가지고 반가워 하지만, 타종교인들은 경계의 태도를 보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의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보고들은 것을 말해 주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요한도 예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귀신들렸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꼬았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입맞추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시몬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책망을 받았고,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시험하고 믿지 못하며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세례요한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믿고 있습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권요셉 ·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며, 귀신들리고 병든 자들은 도움을 청하는 대로 고쳐 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아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4-15절).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22-25절). 그 길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 돼지들이 몰살한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26-39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가는 동안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 죽은 딸도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40-56절).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 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와 주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나아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명하 · 김서영 · 정현주 단기선교사(방글라데시)가 남은 6개월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기의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복음 전도를 하게 하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1-9절).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후(10-1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드디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8-27절). 변화산에서 변형되사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 죽으심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고(28-36절), 간질병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37-45절).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57-62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고난보다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축복보다는 이 땅위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더 원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같이 이 땅의 복을 원하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얻을 우리를 얻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얻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② 이소영 평신도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여름이면 농어촌 전도대회를 나갑니다. 이제는 농한기를 찾아 겨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골에 가면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4절). 그리고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5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9절). 그렇게 말씀대로 나갔던 전도대원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며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17절).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사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외치셨습니다(21절). 그 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25-37절). 봉사하느라 분주한 마르다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38-42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물질적인 것을 갖추기보다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줍시다.

순수한 복음 전도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주변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비방 하는 것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였던 자들이 더 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무리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였습니다(15절).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29절).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독이 가득하며, 십일조는 드리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으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으나 겉은 평평한 무덤같으며,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대지 않으며, 선지자의 무덤을 쌓으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37-54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온 종교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당신의 신앙과 삶은 혹 자기 편견에 빠져 주의 책망받을 만한 것은 없습니까?

교만함으로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맙시다.

기도 제목 / ①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삶의 자세를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전투의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예상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1-12절). 그리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고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13-34절). 또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35-48절). 나아가 십자가의 수난을 예고하시고, 진리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라고 경고하십니다(49-59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육신의 평안을 위함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행복은 때로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오늘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추은희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언어를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3장은 다섯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단락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면서도 통일된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 적의를 가진 종교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회개라는 주제로 집약됩니다.

첫째 부분(1-9절)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둘째 부분(10-17절)은 안식일에 18년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을 촉발합니다.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반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셋째 부분(18-21절)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넷째 부분(22-30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역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부분(31-35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 슬프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와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 제목 / ①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시민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고(1-24절), 이어서 천국시민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25-35절).

예수님은 천국시민의 자격을 세가지 비유로 교훈 하십니다. 잔치에 초청 받아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으로 겸손을 가르치고(7-11절), 소외 받는 사람도 잔치에 초청하라는 말씀으로 이웃사랑을 가르치시며(12-14절), 하늘나라 잔치 비유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15-24절).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기쁨이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신이 천국에 가고, 또한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 잘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교훈 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고(28-30절) 전쟁을 하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31-32절).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야 합니다. 군인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준비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No Cross, No Crown).

기도 제목 / 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미움과 불화, 고통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즉, 잃은 양 비유(1-7절), 잃은 동전 비유(8-10절), 잃은 아들 비유(11-32절)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은 흔히 '회개에 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유'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을 잃은 목자, 동전을 잃은 여자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는 한결같이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는 실로 목자를 떠난 '어리석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이며, 주인의 손을 떠난 '가치 없는' 동전처럼 버려진 인생이며, 아버지를 대적하고 떠난 '사악한' 아들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사랑하고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서 돌아만 오라'라고 하십니다. 어리석고, 가치 없고, 악한 죄인일지라도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전쟁도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지만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1-13절)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9-31절)를 통하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행위의 비윤리성 때문에 해석상 난해한 부분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 비유를 통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즉,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는가?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자의 복지를 위해 재물을 사용했고, 부자는 오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다는데 비교가 됩니다.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탐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14-18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돈과 신앙이 정비례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돈과 신앙의 상관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가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물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하늘에 있는 본향

찬송 / 541장(저 요단강 건너편에)

본문 / 히 11:13~16

들어가면서(서론)

한국인의 관념에는 고향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의 부모가 계시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전 국토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참된 고향' 즉 '본향'(本郷)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본향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결말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이 결말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3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정리하십시오.

② 14절에 나타난 '이같이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십시오.

③ 15절에 나타난 '저희'에 대해 정리해 보십시오.

④ 16절에 나타난 '저희'에 대해 정리해 보십시오.

2. 다음 주일 설교('하늘에 있는 본향')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본문에 나타난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②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이란 어떠한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9~22:5을 읽으시고 본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실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의미적인 것일까요?

③ 성도들이 본향을 향한 달음질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 보십시오.

· 36절 -

· 37절 -

· 38절 -

· 39절 -

④ 성도들이 본향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과 꿈은 무엇입니까?

⑤ 성도들이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져야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1~2과 로마서 8:17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⑥ 성도들이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면서(결론)

1.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약과 신약에 묘사된 참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 때문에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본향을 추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세상적인 형편과 여건이 좋은 자의 삶

② 세상적인 형편과 여건이 좋지 않은 자의 삶

2. 본향을 향하여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간략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찬송 / 318장(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본문 / 눅 7:8~13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에서 스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전(前)세대의 실패에 대해 간절히 외치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거절하였습니다(11절). 싫어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의로우신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은혜와 자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죄 씻기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사 1:18 참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9,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 를 정리하십시오.

② 11, 12절에 나타난 '유대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 를 정리하십시오.

③ 13,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심과 심판' 을 정리하십시오.

2. 다음 주일 설교('청종하기를 싫어하여')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위험한 일입니까?

②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까? 잠언 1:24, 28과 디모데전서 4:1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③ 죄악된 인간은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57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④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보이는 태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같이 굳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12절). 그렇다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17:9과 누가복음 8:15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나오면서(결론)

1. 청종하기를 싫어한 결과

오늘의 본문에 나타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히 3:7~8). 그리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히브리서 12:6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듣고 따르지 아니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며,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2. 예수께 가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욕망과 다툼과 질투 등 악한 것들을 불같이 일으켜서 고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음을 아신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두 분 정도만 간략하게 3분 정도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3 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나?

찬송 / 349장(나 주의 도움 받고자)

본문 / 출 3:13~4:6

들어가면서(서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가 하루는 호렙 산 위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을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화의 순간입니까. 외롭고 고독하여 슬픔에 사로잡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중함과 경외함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모세가 이를 듣자마자 즉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축복이겠습니까?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3:14~15에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십시오.

② 3:16~20에 나타난 '모세의 소명'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③ 3:21~22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④ 4:1에 나타난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정리하십시오.

⑤ 4:2~6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2. 다음 주일 설교('네 손에 가진 것이')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출애굽기 3:11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이방에서 객이라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출2:22).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나 형편을 사용하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게 가장 놀라운 대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출 3:12 상반절, 마 28:20)

② 출애굽기 3: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의 체험을 하셨습니까?(말씀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2분만 소개해 보도록 하십시오)

③ 출애굽기 4:1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하여 또 다시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거부당하였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출2:11~15).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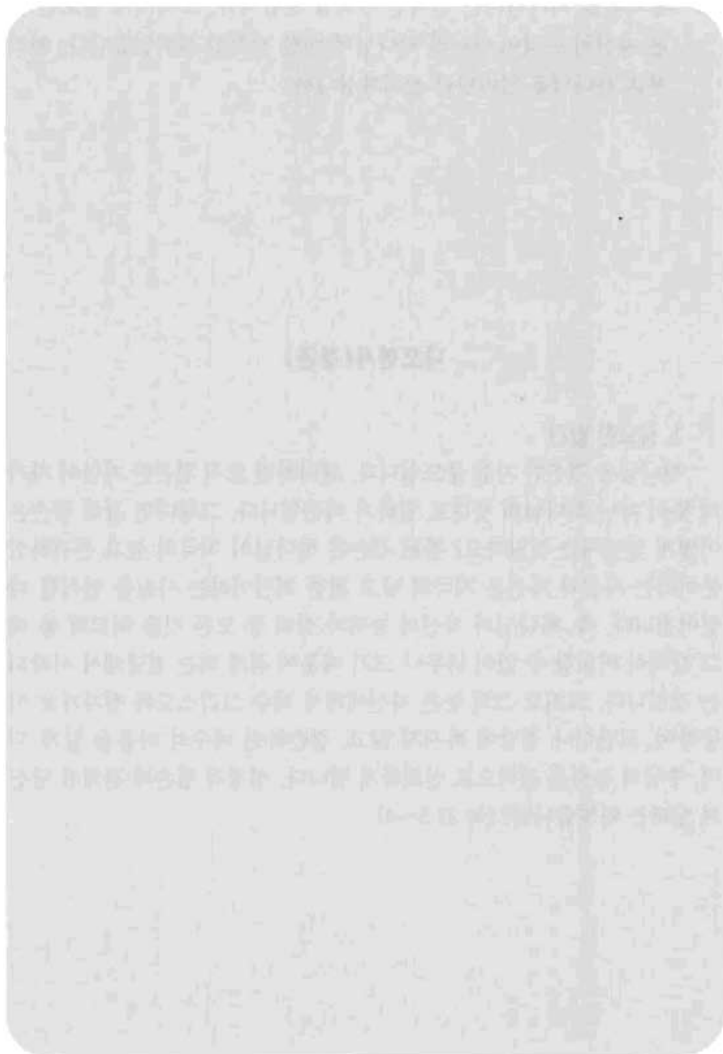
나오면서(결론)

1. 중요한 발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한 자만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자신은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얻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의 능력과 상태 등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그 간격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동하여, 교만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적 겸손과 관계된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눅 21:3~4)

제목:

본문:



제 4 과

영감된 경고

찬송 / 379장(주의 말씀 듣고서)

본문 / 히 3:7~9

들어가면서(서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셨고, 자신의 앞에 서도록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면에서 자세하게 지시하시고 경고하시며 보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으며, 불평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조차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 17:9).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3:7 -

② 3:8 -

③ 3:9 -

④ 3:10 -

⑤ 3:11 -

2. 다음 주일 설교(‘영감된 경고’)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절과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가던 시절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배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들을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범위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설명하지 말고 사건만 간략하게, 반복은 피하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②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의 룖과 사무엘, 악한 아합왕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칠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포로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토의나 설명이 아니라 간결한 한 마디의 문장으로 돌아가면서 나누십시오).

③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3:16~17 -

· 고린도후서 5:20 -

· 히브리서 10:19 -

· 사도행전 4:12 -

④ 오늘의 본문 중에서 3:7~8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면서, 살아온 세월에 대한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기울이며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
- 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너의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잠언 9:10과 29:1, 그리고 히브리서 3:19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나오면서(결론)

1.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15~16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듣는 영감 경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경고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직도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 소명의 필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감된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명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 ② 만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벧전 2:11)?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요 15:2)?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6 과

천 국

찬 송 / 222장
읽을 말씀 / 고후 12:1-4
외울 말씀 / 요 1:12

1. 천국을 본 경험이 있는가?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계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 계 4: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 계 4:3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싼

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행 7:54 저희가 이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행 7: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행 7: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7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행 7:58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고후 12: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고후 12: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2.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직접 보기만 하면 믿음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전도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도 그것에만 도취하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근사한 천국의 모습이라 하여도 그것을 더 좇아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천국을 보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2)

- 계 22: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3)

-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4)

- 계 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계 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5)

사 1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 11: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 11: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 11: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 13:48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 13: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마 13:50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갉이 있으리라

행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나

요 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 10: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5. 마 13:47-50절에서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6.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행 16:31

2) 요 1:12

3) 롬 10:9-10

4) 요 10:7-9

7.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2001년 9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영범
· 집필진 / 만나 · 방준영(1-5일), 정진호(6-10일), 김병태(11-15일) 목사
이중철(16-20일), 정해성(21-25일), 박언기(26-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